

지 상 범 석

주체적 실현자는 바로 나

“탐진치 버리고 마음 바르게하면 모든 괴로움 소멸되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으로 참선과 염불이 있습니다. 참선은 스스로 수행을 통하여 구경의 목적인 불교(佛果)를 얻는 자력주의(自力主義)이며 염불은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 원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타력주의(他力主義)입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길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한길인 셈입니다. 염불이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상(相)과 공(功)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 공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닦아 몸(身)과 입(口)과 뜻(意) 삼입의 입장을 소멸함으로써 지혜와 평안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 신행담에 보면 마음을 넓게 열면 마음 밖에 따로 경계가 있을 수 없고 경계를 널리 퍼면 또 경계 밖에

오직 한마음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32상을 그리면서 염불을 한다면 중생은 극락세계

하게 하여 여래의 모든 일을 생각하면 여래의 뜻을 얻는다. 여래는 바른 법을 위하여 여래가 있는 곳에 항상 기쁜 마음을 얻도록 하여주시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몸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다. 따라서 그 편안함으로써 그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면 몸은 그 모든 장애없이 법의 흐름에 들어서 열반에 이르지 아니 할 수 없다. 이처럼 부처님을 생각하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 절실한 공양을

자력(自力) 자각(自覺)의 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타력이행의 정토론(他力易淨土門)인 염불을 주장하는가? 간혹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마혹 중생은 업장이 무거워서 자력으로 대각성 불이나 왕생극락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보다 수승하고 자비가 많은 불보살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

요, 마음과 아는 것이 분명한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법을 맑게 볼 수 있게 염불함이 지혜행입니다.

모든 일에 그나름대로 처방이 있듯이 염불을 하는데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중히 예배하며 부처님의 대비광명과 원만구족함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禪)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반에 아홉사람은 길을 찾지 못하고, 선을 없으나 정토가 있으면 만 사람이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모두 갈 수 있다”고 영명연수 선사도 말씀하셨습니다.

근기따라 중생들이 불도를 구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하고 넓은 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예경하고 염송하여 부처님의 진리공덕이 자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불자의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요즘 젊은 불자들은 법당에 부처님께 참배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여 방편에 매달리지 말고 직접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

진리에 세우는 이정표

오늘날 우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 혁명에서 시작하여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 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고, 기초 과학은 소립자의 극미의 세계에서 우주 저쪽의 극대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인간 지식의 지평을 넓혀놓았다. 러셀이 이야기했듯이 철학이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종교적 윤리적 견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관 혹은 철학은 자연 과학이 이해하는 세계상과 자연 과학이 제공하는 삶의 기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철학이 자연과학을 포함하던 시기가 있었듯이, 철학이나 세계관과 자연 과학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과학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 삶은 물론이고 그 정신적 기반까지도 과학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사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며, 이 작업은 불교적 가치관으로 서구 문명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문명 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무의식중에 갖는 편견을 그대로 간직하는 한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이 편견이란 과학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연유한다.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는 작업을 전적으로 합리적 체계인 과학을 이용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불교를 증명하려는 것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차라리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안하느니만 못하다. 사실 과학과 불교는 그 자체로서 서로 연관이 없으며, 마치 방법을 달리하여 산을 오르는 두 사람과 같은 것인지 모른다. 험기를 타고 산정상에 내린 한 사람과 한 걸음씩 걸어서 정상에 도달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자신들의 과거 역사와는 상관없이, 서로 같은 장소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두 번째 사람이 파악하는 세계는 첫 번째 사람이 파악하는 세계에 훨씬 못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걸어올라가는 사람

부처님 명호·공덕 찬탄 하며 선업 쌓아야

“염불 6도행 명심...진리가 내속에 있음을 확인하자”

따로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경계를 떠나서 있을 수 없으므로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맑혀 청정본성을 밝게 드러내고 부처님의 진리의 생명인 법성광명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 진리의 무한한 지혜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 왕생한다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반삼매에 들어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색신상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신을 생각하면 능히 생각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불은 더러 그 뜻이 와전되어 입으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의 이름을 부르거나 법당에서 스님들이 독경하는 것만을 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의 지혜 마음에

참선은 빌스러운게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 오고 정신이 맑아져 매사에 판단도 맑게 되는 것이 바로 참선의 이치입니다. 평소 우리 마음을 탐, 진, 치 삼독의 그림자가 가려져 마음이 맑으면 마치 만상이 거울에 나타나는 그대로 순간순간 비추어 보이듯이 검은 것은 검게 하얀 것은 하얗게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거울에 때가 끼면 윤게 비춰 주질 못 하듯 마음의 삼독심을 제거하면 본래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심 염불하여 일념이 되고 다시 수행하여 무념경지에 이르러 염불하게 되면 마침내는 일체 경계가 끊어진 경지에 이르러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참선을 하여 견성성불한다는 것과 염불을 하여 그 정도에 왕생한다는

많은 보살과 진언을 입으로만 외우며 삼매에 드는 그 자체도 염불이지만 염불의 본뜻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그 공덕을 생각하며 선업을 쌓고 하려 하는 것이 인(因)의 씨앗이 극락정토에 또는 이 사바세계에 떨어져 다시 하나의 연(緣)으로써 왕생, 내생의 결과와 같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잡야환경에 염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였습니다. “성인의 제자는 여래의 일을 염(念)하라. 여래는 응공(應供)등정각(等正覺) 명행족(明行足) 선사(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를 염할 때는 탐욕에 업힘을 일으키지 않고 그 마음을 정직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뻐하고 공양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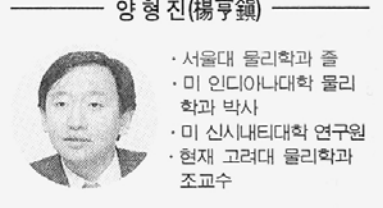
결 용이해 지는 것입니다. 萬緣都放下 온갖 인연 모두 놓아 버리고 常念觀世音 오로지 관세음만을 생각한다면 此是如來禪 이것이 곧 여래선이요 亦稱觀世音禪 또한 조사선이 되느니라.

어기가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예뻐하고 공양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절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시봉하는 일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참불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불자는 소박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신심 깊은 불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순수하게 살면 길이 열리며 그 부처님은 어느 타방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 안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내 생명이 흐르는 부처님의 자비의 화현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는 생명이라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합리적 방법으로 佛法검증하긴 무리 선각자들 깨달음 과학업적보다 넓어

인의 진화론 등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화가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상에 젖어있던 서구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뉴턴은 과학을 이용하여 신의 존재 혹은 신의 섭리를 증명하려고 하였고, 영겔스는 '자연 변증론'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법칙이 자연 과학과 같은 견고한 기반을 갖게 하려고 하였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자연의 이해에 기반하여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뉴턴과 영겔스 시대의 미숙한 자연관이 아닌 현대의 성숙한 자연 과학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자원이 서구 문명에 대해 반성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 눈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전경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언젠가 그 신에 몰락하는 사람이 전해주었던 그 모습이었다. 아직 그 소식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했고, 그것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선각자가 깨달았던 소식, 그 2천5백년 전 송파에서 빛나는 진리를 자연 과학이란 방식으로 한 걸음씩 탐반보고 걸었던 전혀 다른 발견들이 이제 약간이나마 파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학의 업적은 선각자들의 깨달음만큼 포괄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불교가 과학적이라는 사실에 안심하며 안주해서는 안된다. 불교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하여, 인류 구원의 대승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이것은 또한 서구에 진 과학문명의 빛을 동양이 정신으로 갖는 길이 될 것이다.



양형진(楊亨鎭)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 인디애나대학 물리학과 박사, 미 신시내티대학 연구원, 현재 고려대 물리학과 조교수

佛教聖地巡禮, 新春海外旅行, 新婚旅行. Includes travel packages for Thailand, Europe, and other regions with prices and itineraries.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아태관광. Contact information: 732-3200 (代), 제 817 호. Includes a note about a 5% discount for 2-week advance reservations.